

# 근대성의 사유와 사물의 전위(轉位):

1930년대 '모단걸(毛斷傑)'의 물질문화와 근대적 감각

박남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I. 서론: 사물의 전위(轉衛)로 시작한 조선의 근대
- II. 1930년대 조선의 '모던'과 '모단걸'에 대한 이중 코드
  - 1. '모던': 모방과 비판의 양가적 조건
  - 2. '모단걸': 근대의 사물과 유행의 기표
- III. '모단걸'의 물질문화와 근대의 감각적 인식
  - 1. '백화점': 근대적 사물 생산과 소비의 공간
  - 2. '다방': 근대적 문화 공유와 사유의 공간
- IV. 결론: '모단걸'의 물질문화와 근대적 감각

## I. 서론: 사물의 전위(轉衛)로 시작한 조선의 근대

동시대 한국인의 사물인식과 삶의 패턴은 분명 '근대'의 물질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개화기를 지나 1930년대 일제의 문화정치기에 이르는 동안 근대의 이기(利器)로 구축되어 간 서구적 양식의 물질문화는 '조선인의 근대인 되기'의 중요한 가이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질문화의 세계로 인해 근대성의 인식과 근대적 주체의 탄생이 올곧이 이루어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 식민지 조선인에게 근대의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는 의식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하거나 단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는 구경꾼 혹은 이방인의 시선으로부터 냉소와 동시에 동경의 양가적 심리를 작동케 했다.<sup>1</sup> 조선인의 이 같

1. 식민지에서의 지배와 피지배의 종속적 경험은 문화적 차이를 '차별화된 질서'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는 식민 주체의 문화에 동화하고자 하는 '모방' 심리와 이에 저항하려는 '비판' 심리와 상충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설사 물리적으로 강요되거나 주관적으로 선택한 '동화'라 할지라도 식민지인의 정신구조에 자리한 '저항' 의식과 충돌함으로써 '차이'의 극복은 언제나 연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호미 바버(Homi K. Bhabha)가 양가성(ambivalence)을 백인 식민 지배자가 피지배 식민지인에게 지배 욕망과 더불어 느끼는 두려움

은 태도는 식민의 상황이라는 것과, 접해 보지 않았던 서구의 물질문화와의 스펙타클한 만남에서 기인한 것이다.

식민이라는 근대적 조건 아래 접하게 된 서구의 사물은 조선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세계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범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서구 세계에 대한 인식은 조선 중기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峰類說)』(1614)에도 나타났었으나, 그의 세계 인식은 마테오리치(Matteo Ricci)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에 드러난 것처럼 중화의식(中華意識)의 영향권에 있었다.<sup>2</sup> 그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들은 화이론적 세계관에 있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부터 벗어나 '조선은 곧 중화'라는 조선 중심의 세계관을 제기한 이익(李瀾)은 근대로 나아가는 두드러진 의식변화의 전거 가운데 하나이다. 이익의 탈화이론적 세계관은 19세기 문호 개방을 전후하여 위정척사(衛正斥邪), 동도서기(東道西器) 등의 여러 세계관이 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sup>3</sup> 조선은 이웃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서양과의 접촉이 유독 늦었다. 지리적으로 동북쪽에 위치한 조선이 서양인들의 인식 범위 밖이었음이 그 하나의 이유이고, '농본억상(農本抑商)'의 유교적 국가체제의 이념에 따라 경제적으로 무역활동을 성행하지 않았음이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된다.<sup>4</sup> 동아시아 삼국이 모두 쇄국정책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대외교섭이 제한되어 있던 조선에서 구라파주를 비롯해 서양이 실제로 인식된 것은 1910년 이후였고, 1930년에 비로소 근대의 물질과 문화의 프레임으로 조선인들에게 가시화된 것이다.

---

이라 한 것과 대조하여 살펴볼 수 있다. 식민의 지배 주체의 입장에서 피지배 계층에게 그들을 닮기를 요구하지만 결코 같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즉 '흉내 내기(mimicry)'와 '혼종성(hybridity)'의 문제는 이로부터 발원한다. Homi K. Bhabha, "Of Mimicry and Man: The Ambivalence of Colonial Discourse",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1994), pp. 121-131 참조.

2. 이수광의 서양에 대한 최초의 기록에 의하면, 5대주로 된 세계는 1백여 나라로 구성된 아세아주(亞細亞洲: 아시아), 70여 나라의 구라파주(歐羅巴洲: 유럽)와 1백 나라의 이말아주(利未亞洲: 리비아=아프리카), 남북2주의 아목리가주(亞墨利加洲: 아메리카), 미지의 목와랍가주(墨瓦蠟加洲: 메갈라니카)가 있다는 것이다. 서양은 인도양국가로서의 의미였으며, 유럽은 구라파, 대서국, 대서양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서역의 연장선상에서 유럽으로서의 서역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차미희, 『조선후기 서양 세계지리서의 도입과 지식인의 세계관 동향』, 『17, 18세기 조선의 독서문화와 문화변동』, 서울: 헤안, 2007, pp. 141-144 참조.)

3. 앞 책, pp. 156-159 참조.

4. 앞 책, pp. 149-151 참조.

근대의 도로와 운송수단, 건축물이 등장하면서 조선인에게 닫혀 있던 세계 인식의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일본이 근대화를 시작하며 받아들인 서구의 물질문화가 '근대성'에 대한 숙고의 겨를 없이 조선의 공간에 들어오면서 이루어졌다. 기차, 자동차, 양복, 양장, 구두, 양산, 전화, 백화점 등등 서구 근대 도시 공간의 사물들이 식민지 지배국인 일본을 통해 조선의 거리를 점유해 갔고, 조선인은 바야흐로 '물질'을 통한 '근대'를 체험하기에 이르렀다. 신체와 정신을 나누어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이 '사물'로서의 근대의 체화는 '근대성'의 감각을 일깨우는 실질적인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즉 사물이 취하고 있는 외관과 생산 유통 방식이 이전 세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으며,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사유가 발원하였을 법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에서 근대성은 의식적 자각을 일깨우는 사물로부터 옮겨진 것이라는 사유를 가능케 한다. 말하자면, 근대성의 사유가 엄밀하게 제 방위를 가지고 생성되고 전개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근대의 사물들이 굴러가고, 옮기며, 회전되는 '전위(轉位)'<sup>5</sup>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실질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성에 대한 사유는 근대의 사물을 통한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당연하다.

1930년대 조선에는 사물과 공간, 그리고 사람에게서 근대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근대의 사물들이 구르고 옮겨 가는 조선의 도시 공간은 근대적 외관의 사람이 주체였다. 당시 서구의 의습과 행동방식을 가진 이들은 모던걸(modern girl), 모던보이(modern boy)라 칭해졌고, 그들이 조선에서 변별되었던 것은 '보이지 않은 세계관'으로부터가 아니라 '보이는 근대식 물질문화'를 취하고 있던 점 때문이다(도판 1).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머리카락을 자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던(modern)은 곧 모단(毛斷)으로 칭하는 것이 쉬울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은 대체로 개화기 단발령 이후 머리카락을 자른 이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위로부터의 개혁이라 빠르게 확산된 반면, 여성들은

5. 여기서의 전위(轉位)는 모더니즘 정신으로서의 전위(前衛)와 다르다. 아방가르드(avant-garde)의 번역으로서의 전위(前衛)는 앞선 선두의 의미로 압축되나, 여기서의 전위(轉位)는 탈구에서부터 기인하여 구르고 변화하여 위치하게 되는 의미로 간주될 수 있다. 사유와 사물의 변화에 의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쳐 위치하게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이다.



도판 1. 신낙균, 〈최승희〉, 1932.

의태를 체화한 모던걸에 대해 식민지 조선의 시선은 ‘모단걸(毛斷傑)’로 정리되었다.

‘모단걸’은 머리를 자른 출중한 인물이라는 일차적 의미의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서구화를 지향하는 ‘홍내 내기’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더욱 부각된 말이다. 근대적 사물로 가득 찬 도시 공간 속의 ‘모단걸’은 한편으로는 ‘근대인 되기’의 수행적 주체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롱과 비판’의 대상적 주체로서 이

스스로 선택한 아래로부터의 변화였기 때문에 보다 두드러진 현상으로 비춰졌다.<sup>6</sup> 모단의 행위는 상투를 자른다는 것과 상통하여 지난 시대와의 단절을 압축하는 변화의 단적인 상징이다. 모던보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비할 수 없는 따가운 눈초리를 견디거나 혹은 즐기는 모던걸은 영화, 잡지와 같은 매체뿐 아니라 백화점, 다방과 같은 공간들로부터 관행을 익히며 서구적 근대인 되기를 ‘홍내 내고’ 있었다. 근대적 공간을 누비며 서구적 의습,

6. “단발이야말로 진정한 모더니티의 표상”(김진송,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9, p. 181)이라 말해지기도 했지만 1895년 단발령에 따른 단발은 제국주의에 항변으로 상징되었다. 1926년경 남성들은 도회지 근처에서 단발을 하고 모자를 쓴 인물들이 반절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장석만, 「수염깎기와 남성성의 혼동」, 『역사비평』 제59호, 1992, pp. 391-392). 1920년 무렵 여성을 위한 미용실이 등장, 1933년 화신백화점 내 오엽주가 최초 미용실을 개장하였다(전완길 외, 『한국생활문화 100년』, 서울: 장원, 1998, pp. 89-92).

7. 모던걸이라는 명칭이 신문지 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조선일보 1927년 4월 13일 자 기사 「중국의 대표적 모던걸」이라는 사진에서였다. 『동아일보』는 1927년 4월 29일 3면에 실린 「요새 일본 ‘모던걸’(신식여자)들 간에는 담배 먹는 것이 유행이 된다는데…」라는 기사가 다음으로 나왔다. 이 무렵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일본이나 서구의 신식 여성을 가리켜 모던걸이라 칭했지만 1927년 8월 20일 자 『동아일보』에 보면 “진고개니 종로니 하는 변화한 거리를 중심 잡고서 머리를 깎고 안경을 쓰고 짧은 스커트를 입은 아가씨들이 급한 일이나 있다는 듯 왓다갓다한다는 말을 해놓고 저 영어로는 모던, 걸이랴나 무어라니하는 것을 낫낙은 한자음으로 바꾸어 낫코보니 毛斷傑(모단걸)이라는 삼자가 떠러졌다고 하자…”의 기사에서 단발을 하고 안경을 쓰고 짧은 스커트를 입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모던걸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모던걸이 등장한 시기도 이 즈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던걸이라는 명칭이 사용하면서부터 신여성이라는 용어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중적 지표로 작용했다. 이러한 근대를 살아 냈던 주체들은 비판의 대상으로 비쳐졌지만 모방의 실체로 삶과 의식의 지평 융합에 이르지 못한 불편한 근대인을 형상화했다. 즉 모던걸은 '모단걸'로 때때로 '못된 걸'로 노골적으로 적대시 되었음에도 조선의 끝자락과 근대적 세계를 잇는 물질문화와 근대적 감각의 실체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식민 조선의 굴레를 벗어나도록 이끄는 선구적 인물들에서부터 성의 상품화로 전락한 인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 속 '모단걸'은 서구적 모델과 근대라는 조건의 상징적 존재였던 까닭이다.

'모단걸'의 행보는 여러 공간에서 드러나지만, 그들의 물질문화와 근대적 감각을 숙련시켰던 곳은 백화점과 다방이었다. 사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백화점의 공간은 근대식 건축물과 근대의 사물들 그리고 근대적 의태를 한 사람들의 공간이었다.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아케이드를 상기시키는 경성의 백화점 쇼케이스 안의 물건들은 밝은 조명 아래 친절한 데파트-걸(department girl)의 안내로 소비가 자극되었고 표준화된 행복의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상품을 판매하는 데파트-걸이든 구매하는 고객이던 '모단걸'의 의태를 갖춘 이들이 다수였고, 이들은 상품의 매매뿐 아니라 근대의 유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였다. 그런가 하면 다방에서의 '모단걸'은 모던보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음악과 문학 그리고 미술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국적 취향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한 다방에서는 테이블과 함께 유성기가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었다. 다방의 소유주는 문화계 인사들로, 영화배우, 작가 등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곳 다방을 행보하는 '모단걸'은 카페나 다른 유흥공간과는 차별된 계층이 다수였다. 문화적 소통을 통해 근대를 익히며, 근대적 감각의 의식을 공유하는 장소가 바로 다방이었다.

이와 같이 이 글은 사물과 의식의 불균형한 점유율을 가졌던 식민지 조선의 근대와의 접촉에서 '모단걸'의 사물과 문화 공간에서 근대적 감각을 추적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근대성의 사유가 근대적 사물세계의 전위 없이 불가능했음을 전제하고 우리식의 근대성의 기저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sup>8</sup> 근대성에 대

8. 식민지 조선의 근대성에 관한 논의 가운데 서구의 인문주의적 근대성보다는 과학주의적 근대성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조선의 인문주의적 근대성은 동학의 반봉건과 반체국주의 사상을 반영한 민족주의, 평등주의, 휴머니즘과 상통하나 이는 실패하였고, 한결같이 의학, 공업, 상업을 강조하면

한 자각이 사유보다는 물질들에 의해 자극 받았던 일련의 상황을 통해 적어도 근대적 감각이 체화된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 글은 근대성을 전면으로 다루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근대성을 사유해 했던 사물 인식과 그 주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먼저 모던과 모던걸에 대한 식민지 조선의 양가적 심리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근대 풍경의 수행적 주체로서 ‘모단걸’의 감각이 근대적 사물 공간으로서 ‘백화점’ 그리고 근대적 문화 공간으로서 ‘다방’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모단걸’의 물질문화와 근대적 감각이 동시대 우리에게 이어진 동시대성의 근거 중 하나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 II. 1930년대 조선의 ‘모던’과 ‘모단걸’에 대한 이중 코드

### 1. ‘모던’: 모방과 비판의 양가적 조건

1930년대 접어들어 일제의 공업화 정책이 가속화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의 기초인 통신,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기간사업이 다져졌다. 이는 일본의 조선 땅에 대한 군수산업기지화의 목적이었겠지만, 조선이 근대 세계로 진입하는 데 물리적 토대가 구축되었고, 기차역, 백화점, 다방 등의 근대적 건축물이 거리의 풍경을 바꿔 갔다. 식민지 조선은 근대 도시의 모양새를 갖춰 가기 시작했고, 이 공간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했던 모던보이와 모던걸은 자체로 ‘모던(modern)’의 실체였다.

조선이 근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의 언어적 전회와도 같이 ‘modern’이라는 영어로 개화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했다. ‘모던’이라는 영어 단어로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근대와 전근대를 나누는 표식과 같이 영어적 표현이 새로운 실체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 ‘모던’은 일종의 유행어이자 새로

---

서 물질 생산 능력의 증가가 국력 신장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신과학 대신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에 몰입하였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자연과학 중심의 근대성을 일본을 통해 들여왔고, 일본식 근대화가 조선의 근대화 모델이 되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물질문화에 대한 관심은 새로운 시대정신과 같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김우필, 최혜실, 「식민지 조선의 과학·기술담론에 나타난 근대성」, 『한민족문화연구』, 제34집 (2010), pp. 254-260 참조).

움에 대한 고유명사와 같이 쓰였다. 남녀노소 모두 의상과 건축물, 예술, 취향, 문학 장르, 행동거지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새롭고 흥미로운 낯선 현상에 대해 ‘모던’이라는 형용이 따라붙었다.<sup>9</sup> 넘쳐 나던 ‘모던어’ 가운데 가장 많이 썼던 말이 ‘모던’이라 한다.<sup>10</sup>

“모던 모던의 세상이다. 미국이 그러하고 구라파 각국이 그러하고 상해가 그러하고 가직한 일본이 그러하고 그운뎃에 조선도 그러하다, 모던! 모든 것이 모던이다. 모던꼴 모던뽀-이 모던大臣 모던왕자 모던철학 모던과학 모던종교 모던예술 모던자살 모던극장 모던스타일 모던순사 모던도적놈 모던잡지 모던연애 모던건축 모던상점 모던기생(조선에 한함) ... 무제한이다. 사람의 생활에 관한 말에 모던 자(字)가 아니 붙는 말이 없고 사람의 입에서 모던이란 말이 나오지 아니하는 입이 없다.”<sup>11</sup>

임인생의 진술처럼, 식민지 조선은 생활 세계 전반에서 ‘모던’에 의한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던 것이다. 근대적 삶의 공간인 도시가 형성되고, 그 안에 서구적 건물과 의습의 인물 및 사물로 이루어진 ‘모던’ 세계의 양식을 마주하고 친밀화하기 시작했다. 임인생에게 모더니즘은 아메리카니즘을 모체로 하는 일부 소비 계급의 ‘문화적 생활형식’이다. 즉, ‘토-키, 라디오, 텔레비전, 태평양횡단, 마네킹, 절머지는 법, 삼 분간 연애와 이 분 후 단념, 자유이혼, 탐정소설, 콩트, 유머, 짜즈, 레뷰, 라팔바지, 짤분 스카트’로 드러난 것과 관계된다. 임인생의 말처럼 모던, 모더니즘은 과도기의 병적 문화로 게으름, 낭비성, 무기력, 허식, 무목적, 소비 일면적으로 하여 그 기초가 빈약하였다. 일본을 통해 들어온 ‘모던’ 현상에 대한 자조적이고 도덕적인 비판의식은 신여성과 모던걸을 중첩시켜 ‘사치’ ‘허영’ ‘퇴폐’의 욕망으로 독해하게 했던 것이다.<sup>12</sup> 즉 이것이 무엇인지, 왜 바뀌는 것인지를 물을 겨를 없이 ‘모던’ 생활세계의 사물들이 먼저 ‘근대성’의 지표로 작용했던 것이다. 근대인의 근대성 인식이라기보다는 근대적 사물세계를 통한 근대성의 감각화가 지배적인 상황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9. 고지현, 「유행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근대성」, 『大東文化研究』, Vol. 71 (2010), p. 369 참조.

10. 최규진, 「모던(modern), ‘모던(毛斷)’의 눈물」, 『일상생활사』, p. 243.

11. 임인생, 「모던이쌌음」, 『별건곤』, (1930년 1월), p. 136.

12. 김수진, 「모던걸, 식민지적 모방의 양가성」,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학술대회자료집』, (2005년 10월), p.49 참조.

모던이라는 기표는 과잉되나, 그 기의는 모호하다는 것이다.<sup>13</sup>

모던의 물질문화적 기표는 1920년대 중반부터 경성의 문화풍경으로의 문화 풍경으로 자리하며 '서양/미국'풍으로 변모되어, 할리우드 영화, 카페와 여급, 축음기와 재즈, 맥주와 칵테일 등의 서양/미국 문화와 문물이 진고개를 넘어 남촌, 북촌으로 확산되었다. 안함광은 1933년에 이를 두고 '문화'를 신식과 유행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를 범하는 일이라며, 물질적 생산과정에 독자적 가치를 부여하고 신성한 존재화함에 대해 비판하였다.<sup>14</sup>

"세기말적 퇴폐문화의 오색등은 각각으로 변색되어 간다. 하로하로 마비되어가는 모던 이스트들의 오관은 살육적 강렬한 자극을 갈구하며 괴기한 독창을 차차 집중된다. 그리 하여 이러한 모던~의 색 등에 시각을 빼앗긴 그들은 드디어 맹목이 되고 과민한 백치가 되었다."<sup>15</sup>

즉 모던에 대한 맹목과 백치가 되어 가는 상황에 대한 이 같은 비판적 시각은 사실상 다수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대체로 이때의 '모던'의 의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조명되었다는 김수진의 의견은 설득력이 있다. 그에 의하면, 모던의 두 차원에서 그 하나는 서양적인 것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당대적인 것의 차원이라는 것이다. 모던이 당대를 의미하는 영어적 표현이라며 서양적인 것에 대한 추종에 대한 논의로 이어 가면서, 서양적인 것은 '물질'과 '정신'으로 구별되며, '물질'은 '양풍'으로 정신은 '현대 자유주의 의식'이라 일컬어진다.<sup>16</sup> 어떤 의미에서 모던은 양풍과 자유주의 의식이 그간 조선에서 경험되지 않았던 세계였기에, 일차적으로 감각적 차원에서의 인식이 보다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아이스크림, 소다수, 빼루, 프루스 편취, 혼부라, 밀크홀, 토-스트, 푸레인 소다'와 같은 단어들은 근대의 건축 만큼이나 강한 '모던'에 대한 직간접적 체험을 부각시켰다. 더군다나 비평가들이 매체를 통해 발톱을 세우며 비판을 했던 서양식 물질문화에 대한 동경에 대한 논의는, 일부는 오히려 모던에 대한 사용설명서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에세이나 기사

13. 앞 책, p. 48 참조.

14. 안함광, 「여성과 문화문제」, 『신여성』, (1933년 2월) 참조.

15. 「모던-복덕방(구모던)」, 『별건곤』, (1930년 11월), p. 150.

16. 김수진 (2005), p. 50 참조.

들에서는 그 자체로 욕망하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이는 모던어를 풀이하는 사전류는 이를 한층 고조시켰고 모던에 대한 감각의 확산과 경계가 동시에 진행되었음을 확인시킨다.

요약컨대, 1930년대 조선에서는 ‘모던’이 ‘모단’으로 패러디되어 근대적 표식으로 인식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특히 조선의 경성에는 옷과 장신구, 머리와 화장, 거리의 간판과 먹는 음식, 음악과 볼거리처럼 사람들의 육체와 감각에 닿아 있는 것이었다. 즉 ‘모던’은 시대적 개념과 함께하는 서양풍에 대한 총칭으로서 일종의 새로운 물질문명적 세계관을 대변한 지시어였던 것이다. 가장 기초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로부터 삶의 환경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구로부터 기인한 용어와 인식이 퍼져 나가면서 ‘모던’의 의식과 감각이 체화되어 간 것이다. 이는 그간의 조선에서의 서구 세계에 대한 수용이나 인식의 태도와는 다른 변화였다. 말하자면 ‘동도서기’와 같이 물질과 제도는 수용하되 정신은 우리의 것을 가져야 한다는 조선 중심적 사유의 마지노선을 넘어섰음을 깨닫게 한다. 서구의 물질이 삶의 세계에 도구로서 편리를 가져다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감각적 체험과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한 실체로서 작용한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즉 식민지 막바지에서 조선의 ‘모던’은 물질적 감각의 실체임과 동시에 동경과 비판이 공존의 인식구조였다.

## 2. ‘모단결’: 근대의 사물과 유행의 기표

일상의 공간과 도시의 거리에서 보다 많은 이들의 눈에 띄는, ‘모던’ 바람의 주인공은 단연 ‘모단결(毛斷傑)’이다.<sup>17</sup> 즉 ‘모던’의 ‘모단결’은 물질문화의 주체로서 각인된 존재이다. 적어도 조선에서 근대의 스펙타클, 근대의 이미지에 경도를 보여주는 지시체로서 모단결은 모던의 기표였고, 특히 앞서 밝혔듯이 짧게 자른 머리를 한 이들은 과거와 다른 모던결로 부각, 패러디되어 ‘모단결’로 불렸다. 식민지 상황에서 맞이한 근대의 모단결은 식민의 지배세력과 서구의 물질문화에의 동화를 통해 혼성적 정체감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파르타 샤테리지가 말한 바처럼, “식민지 사회의 민족주의는 서구와의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17. 김수진 (2005), p. 39.



도판 2. <긴자거리의 모보와 모가>, 1930년대.



도판 3. <기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플래퍼>, 1920년대, 출처: *Flapper Magazine*.

구성되는데, 이때 이 차이를 산출하는 장소가 젠더화된 질서인 것이다.”<sup>18</sup>

머리카락도 신체의 일부로 간주했던 유럽의 사고로 보자면, 모단걸은 자신의 뿌리를 베는 행위로 이미 그 자체로도 곱지 않은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지난 시대와의 단절, 조선이 아닌 일본이나 서구를 지향하는 머리와 의습으로 눈에 띄는 모단걸은 모던보이보다 한층 더 가십에 휩싸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근대 조선의 공간에 상징적 존재로 부각된 모단걸이 어떻게 기인하게 되었는가의 문제는 1920년대부터 기인한 여타의 여러 모던걸들에 대한 논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근대의 여성들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모던걸(モダンガール, modan gāru), 짧게 ‘모가(moga)’라 칭했고(도판 2), 미국에서는 ‘플래퍼(flapper)’(도판 3), 독일에서는 ‘네우에 프라우엔(neue Frauen)’, 프랑스에서는 ‘가르손(garçonne)’, 중국에서는 ‘모뎡 시아오지에(modeng xiaojie)’라 칭했다.<sup>19</sup> 여기에 조선의 모던걸, ‘모단걸(modeon geol)’<sup>20</sup> 역시 포함된다. 이는 분명 새로운 시대, 과거와 변별된 여성상이 등장한 것에 대한 인식의 표현이다. 이들은 지역마다 그 특성이 조금씩 달랐으나, 각각의 지역에서 도드라진 근대적 기표로서 작용하였으며, ‘근대

18. Partha Chatterjee, “The Nationalist Resolution of the Woman’s Question”, in *The Nation and its Fragments: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19. *The Modern Girl Around the World: Consumption, Modernity, and Globalization*, Edited by Alys Eve Weinbaum, Lynn M. Thomas, Priti Ramamurthy, Uta G. Poiger, Modeleine Yue Dong, and Tani E. Barlow, p. 1.

20. Y. Shim Chung, “The Modern Girl (Modeon Geol) as a Contested Symbol in Colonial Korea”, in *Visualizing Beautygender and Ideology in modern East Asia*, Edited by Aida Yuen Wong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2), pp. 80–89 참조.

적 사물'과 '유행'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다. 특히 전근대와 근대라는 시점이 자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격동의 순간에 여성의 물질문화적 기표화는 감각적 근대성에 대한 사유의 단초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세계의 풍경이었고,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미 불어온 근대의 바람이자, 현상이며, 감각으로 작용했다.

조선에서 '모던걸'이라는 용어는 일본과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1924년 기타자와 슈이치의 「モダン ガール」(『여성』 8월호), 1925년 니이 이타루의 「모던걸의 윤곽」(『부인공론』 4월호)에서 거론되면서 '모던걸'이 널리 확산되었다. 두 곳 모두 '모던걸'을 부정적이며, 서구식 복장과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였다.<sup>21</sup> 그무렵 조선에서도 '모던걸'이 처음으로 잡지를 통해 등장하였다. 1925년 『신여성』 6월호, 김기진의 글에서 '오늘의 신여성'을 구여성과 비교하면서 모던걸의 장점을 쾌활하고 활발하고 활동적으로, 단점을 허화부박(虛華浮薄)으로 짚었다.

“여기에서 현대의 여성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현대의 학교를 거쳐서 나온 여성 말하자면 도회에서 성장하였다고 하야도 가할 만한 여자들을 가라쳐서 말함인 것은 물론이다. 그만큼 도회의 공기에 접촉한 것만큼 그들은 도회문명의 연독(鉛毒)을 입고 있다. 현대의 여성들이 화미한 것을 요구하고, 심한 사람은 그것을 구하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안을 만큼 타락하여 있다는 사실은 그 주요한 이유가 문명의 연독을 입고 있는 데 있다.”<sup>22</sup>

이처럼 조선에서 처음으로 모던걸이 등장한 글에서는 현대의 여성으로 도회에서 성장하고 도회문명의 연독에 있음이 강조되었다. 이어 1927년 조선일보(「근래에 차차 생기는 '모던걸'이란?」 「모던걸」)와 중외일보(「모던걸이란 어떤 여자인가?」)에 모던걸이 소개되는데, 모던걸의 변화된 시각적 특성이 강조되고,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지의 모던걸과 관련된 가십성 기사와 배우들 및 유행 패션 등이 함께 노출되었다.<sup>23</sup> 모던과 모던걸을 조선의 현상으로 유행과 비평으로 이끈 것은 『별건곤』이다. 이 매체가 1927년 12월호 '모던보이 모던걸'

21. 김수진 (2005), p. 40 참조.

22. 김기진, 「요사히 신여성의 장치와 단처」, 『신여성』, (1925년 6월), pp. 38-39.

23. 김수진 (2005), p. 41 참조.

특집 이후 이 용어를 널리 알리게 되었다.

대부분 매체에서 조선의 모던걸은 일본의 모가(mo-ga)와 미국의 플래퍼(flapper)와 함께 거론되었다. 1927년 신문기사(6월 26일 자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단발한 묘령의 미인을 플래퍼라 하며, 우리의 모던걸과 같은 의미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사실, 플래퍼는 1920년대 미국에서 쓰인 속어로 짧은 치마에 단발을 하고 점잖은 행동이라고 간주되던 것을 경멸하는 새로운 종류의 젊은 여성을 지칭했다.<sup>24</sup> 이전 시대 풍만한 가슴과 엉덩이와 우아한 자세를 특징으로 하던 깁슨걸(Gibson Girl)<sup>25</sup>(도판 4)과는 판이하게 다른, 짧은 드레스와 코르셋 대신 가슴을 조이고 엉덩이를 조그맣게 만드는 거들 브라, 말아올린 스타킹, 가늘고 긴 다리, 창백한 얼굴에 붉은 입술, 검게 그린 눈 등의 가늘고 긴 소녀 같은 외관이 플래퍼의 특징이었다. 이는 일본의 모던걸과 공유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조선에서는 이 플래퍼 스타일은 유행하는 여러 양장 스타일의 일부로만 간주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일본의 ‘모가’는 그 내면적 성향이 유럽의 ‘신여성’이나 미국의 ‘플래퍼’와 다르게 ‘건방지고 뻔뻔(なまいま)함’을 특징으로 한다. 모가는 완벽히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독립적이었다.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 산업의 직업을 갖고 스스로 생활하였다. 이들은 담배를 피고, 영화를 보고, 카페를 들락거렸고, 자신이 선택한 이들과 성애적으로 자유로웠다.<sup>26</sup> 그래서 다분히 공격적이거나 위반적인 혹은 비정치적이며 생각 없는 존재들로 평가절하되었는데, 그들은 새로운 패션을 차용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에 대해 의식적인 정치적 표현을 하는 도전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일본

24. flapper는 ‘퍼덕이는 새끼새’라는 뜻으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집 밖으로 나와 일하게 된 젊은 여성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세태를, 동지를 공연히 떠나 버리려는 새들에 비유하여 영국에서 쓴 적이 있다. 단추 없는 신이 펄럭거리다고 해서 플래퍼 패션으로 알려진 데서 유래하였다고도 한다. 미국의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플래퍼의 외모와 라이프스타일을 작품을 통해 대중화시켰다. 플래퍼는 점잖지 못한 이미지도 불구하고 여성 패션에서 코르셋을 없애고 단발을 대중화시켰다. 김수진 (2005), p. 43 참조.

25. 깁슨걸은 189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미국과 캐나다에서 20년 동안 일러스트레이터 찰스 다나 깁슨(Charles Dana Gibson)의 펜으로 그린 삽화에 묘사된, 여성적인 신체 매력이 이상화된 대상을 일컫는다.

26. Roger N. Lancaster and Micaela Di Leonardo, *The Gender/Sexuality Reader: Culture, History, Political Economy* (New York: Routledge, 1997) 참조.

의 모던걸, 모가는 ‘신여자의 딸’로 신여자의 이념을 생활을 통해 드러냈지만, 일본의 저널리즘은 이들을 난잡하고 몰정치적이며 강박적인 존재로 몰아세웠다.<sup>27</sup>

확실히 조선의 모단걸은 플래퍼보다는 일본의 모가에 참조점이 있다. 하지만, 모단걸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양장을 입는 것이나, 단발, 노출, 유행, 사회집단 등에서 모던걸이라는 말이 불러 일으키는 규범에 대한 태도와 성적 은유로 하여 변별되곤 하였다.<sup>28</sup> 즉 모던걸에 대한 성적, 성애



도판 4. <킵스걸> 사진.

적인 것에 대한 논의들도 모단걸의 이미지에 상당히 큰 비중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의 모가들이 소설에서 팜므파탈로 그려지는 것이나, 조선에서 모단걸이 낭만적 연애보다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논의들이 증가한 것뿐 아니라 콜론타이즘(Kollontaism)과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었다.<sup>29</sup>

매체에서 논의된 조선의 모던걸은 일본 모가의 복장을 그대로 한 존재이거나, 저고리에 통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가리키고 있다. 1927년 『별건곤』에서도 모던걸의 외적 특징을 붉은 연지를 바른 뺨에 보브식 단발, 화려한 색 원피스, 허벅지 끝에 레이스가 달린 실크스타킹과 뽀족한 검정 구두, 모자를 쓴 여성들로 밝히고 있다. 즉 이 같은 특징의 ‘모단걸’은 모가로부터 모던의 양식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조선의 모단걸은 이 같은 서구적 외관의 특징뿐만 아니라 개량한복에 변화를 준 의습 역시 특성으로 간추려진다. 안석주는 단발, 스타킹,

27. Miriam Silverberg, “The Modern Girl as Militant”, in Gail Lee Bernstein (ed.), *Recreating Japanese Women, 1600–194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 256–260 참조.

28. 김수진 (2005), p. 44 참조.

29. 김수진 (2005), p. 46 참조.

무릎 길이의 통치마, 반지와 시계를 찬 여성들의 모습을 언급하였다.<sup>30</sup>

모가를 통한 서구 모던걸의 특성을 좇는 조선의 '모던걸은 모방의 병리적 기표이다.'<sup>31</sup> 이 같은 언급은 지극히 현실적인 모던걸에 대한 평가와 지표를 담고 있다. 서구의 근대적 외관을 취하고, 손짓과 표정까지 흉내 내는 이들로 하여, 모던걸은 근대적 주체의 의미보다는 서구 물질문화에 대한 맹종의 허위주체의 표상으로 독해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급격한 근대적 사물과 외관의 모던걸의 기표는 무엇보다 대중잡지와 신문 등의 인쇄물과 영화와 같은 미디어의 영향에 힘입은 바 컸다.<sup>32</sup> 이 시기 잡지의 발행 목적이 근대성의 성취였다 하는데, 그에 따라 소위 '근대의 전형성과 근대인이 되는 레시피'를 제공받았다.<sup>33</sup> 이 중 『별건곤』은 최초의 대중잡지로 문학, 비소설, 영화, 음악, 상식, 역사, 무용, 박물관학과 동물원극장 같은 첨단 근대적 취미와 교양을 알리는 데 일조하였다. 신문, 잡지, 영화 등 도처의 미디어는 근대의 스펙타클을 제시했고, 근대의 이미지로 이끌었으며, 미디어가 지시한 이미지는 곧 근대의 표상으로서 닮아야 할 대상으로 각인시켰다. 그러한 지시를 수행하듯 모던걸의 모방이 이어졌고 여과 없는 맹목으로 읽히는 것은 무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모던걸 전체를 맹목과 백치의 이미지로 동일화시킬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식민지 조선의 모던걸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서양식 의복을 입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계의 모던걸들과 다르게 계층이 매우 복잡적이고 중층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들의 정신적 혹은 행동 패턴 모두 제각각이었고, 선불리 규정할 수 없는 경계인이자 혼성적 존재였다. 즉 플래퍼나 모가와와는 다르게, 모던걸은 매우 이질적이고 혼성적인 존재양태를 드러낸다.<sup>34</sup> 조선의 모던

30. 이때 특집의 기고자들은 박영희, 박팔양, 성서인(방정환), 최학송으로 모던걸과 모던보이에 대해 복장과 하장의 외양,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 사회적 위치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논하였다.

31.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조선의 시여성 담론과 젠더 정치 1920-34』, 소명출판사, 2009, pp. 279-342 참조.

32. 한국의 근대의 주요 잡지로는 『개벽』, 『별건곤』, 『삼천리』, 『신여성』, 『청춘』, 『동광』, 『조광』 등이 있다. 특히 『별건곤』의 경우, 취미와 상식을 편집 노선으로 채택한 최초의 대중잡지이다. 문학, 비소설, 영화, 음악, 상식, 역사, 무용, 박물관, 극장 같은 첨단의 근대적 취미와 교양이었다. 근대의 취미를 습득함으로써 근대적 삶의 양태를 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33. 유선영, 「식민지의 '문화주의, 變容과 事後」, 大東文化研究, Vol. 86 (2014) 참조.

34. 서지영, 「식민지 조선의 모던걸: 1920-1930년대 경성거리의 여성 산책자」, 『한국여성학』, Vol. 22 (2006), pp. 199-228 참조.

겉에 속하는 여성들로는 먼저, 성을 직간접적으로 상품화한 기생과 카페걸, 스트리트걸, 택시걸, 키스걸 등의 향락과 퇴폐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이들이 있다. 이외에도 댄스걸, 마네킹걸, 솥걸, 데파트걸, 엘리베이터걸, 버스걸, 헬로 걸 등 근대적 시설 및 소비공간에 고용된 신중 직업여성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장 노동자, 여학생, 기생, 배우 등도 모던걸의 표상의 범위 안에 놓여있다.<sup>35</sup> 이 같은 모던걸들에 대해 조선의 비평가들은 다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앞서 나타났던, 신여성과 다른 무엇이랄기 보다는 ‘나쁜 신여성’이나 ‘미국적인 신여성’을 일컫기도 하였다. 특히 유산자층의 자식으로 ‘허영’ ‘껍데기’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상징물이었고, 모던걸 뒤에서는 동경과 경멸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다.<sup>36</sup>

이와 같은 모던걸의 계층적 혼성성과 이들에 대한 양가적 태도는 이미 그들의 외적 태도나 캐릭터가 근대의 상징이자 유행으로서 도시공간 내에 넓게 퍼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들이 근대성에 대한 감각적, 물질적 기표가 되었음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 III. ‘모던걸’의 물질문화와 근대의 감각적 인식

#### 1. ‘백화점’: 근대적 사물 생산과 소비의 공간

근대의 도시가 되어 가던 경성에서 백화점은 대표적인 근대의 이미지로 유희 지워졌다. 모던걸과 함께 근대의 상징, 백화점은 새로운 세계의 사물 이해를 압도적으로 경험하게 하였다. 즉 근대의 청결하고 체계화된 건축물로서 근대적 삶의 토대이자 물리적 조건을 구현해 보여줬기 때문이다. 백화점 본연의 기능인 상품의 매매 외에, 근대적 사물의 생산과 유통 방식, 사물들의 진열과 물건의 정보 인지 체계, 사물과 사람의 시각적, 정서적 소통, 갤러리 공간, 레스토랑을 통한 물질문화의 소비와 욕망이 오갔던 곳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근대의 도시 공간으로서 백화점은 근대 사회가 가진 빈부의 격차와 차별을 내재한 산업화와 자본주의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었다.<sup>37</sup> 이

35. 고지현 (2010), p. 392 참조.

36. 김수진 (2005), p. 46 참조.

37. 1930년대 경성은 식민자본주의가 급속도로 팽창하는 현상으로, 일제의 전시경제체제를 강화하고 중공업

공간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시각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접근할 수 없는 위계의 공간이기도 하다. 즉 도시 빈민에게는 시각적 눈요기도 사치일 수 있는 차가운 현실의 벽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의 새로운 직업으로서 '데파트걸'은 모던걸의 한 유형으로, 문명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근대적 외관에 서나 정서적으로 변별적 지시체였다. 더불어 '데파트걸'은 단순한 모던걸이 아니라, 근대적 여성의 새로운 이미지, 모던걸로서 사회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 외에 근대 사물과 함께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이들이 발탁되고 고용되면서 성의 상품화를 시작하였음도 부인하기는 어렵다.<sup>38</sup>

근대적 삶의 공간, 도시화의 상징인 백화점은 식민 자본의 유입과 강제의 일면을 스펙타클한 사물 효과를 통해 마비시키거나, 반성과 모방의 양가적이고도 모순적 행위방식을 분열적으로 증식하고 있었다. 근대적 문물과 경험의 실체를 제공했던 백화점의 “도시적 문물은 사람들의 소비 욕망을 자극한다. 근대적 도시의 인간들은 그래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근대의 거리는 일상의 새로운 경험공간이다.”<sup>39</sup> 적어도 근대의 거리에서 시각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의 체험과 허위소비를 경험하는 곳으로서 백화점은 식민지 도시의 복합적 상황과 심리의 장소였다.

근대적 도시로서의 경성은 세 번에 이르는 도시계획에 따라 형성되었다. 한일합방 직후부터 1930년까지 지속적으로 도로정비로부터 시가지 정비를 확장하였다. 1925년의 도시계획과 1936년에 만들어진 도로망과 상하수도망 그리고 전선망을 가지며 경성은 근대적 도시로 변모해 갔고 도심의 주요도로에 전차가 놓이고 상업지역이 형성되었다. 즉 상업도시로서의 경성은 새로 확충된 도로를 따라서 공간의 분할이 일어났다. 일본인 거주 지역의 남촌과 조선인 거주 지역의 북촌으로 각각 지금의 명동과 종로로 나뉘어 상권이 형성된 것이다. 특히 일본인의 거대자본이 상권을 잡은 남촌에는 미카나이(삼중정) 상점, 하라

을 국책산업을 확정함에 따라 일본의 독점자본이 경성에 진출한 시기이다. 양옥희, 『서울의 인구 및 거주지변화: 1394-1945』,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9-56 참조.

38. 백화점예의 취업은 어려웠다고 한다. 결혼을 잘 하기 위해 백화점 점원으로 취업하는 일이 선망이 되기도 했다. 인물을 기준으로 보고 학력뿐 아니라 집안도 좋아야 했는데, 15-16세에서 22-23세가 가장 많았다. 「아아, 청춘이 아까워라!」, 『三千里』, (1933년 10월호) 참조.

39.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1996, p. 66.

다 상점, 미스코시 백화점 등이 호화롭게 가득 찼고, 종로에는 경성상회, 덕원상점, 동아부인사회 등이 종로 2가 일대에 근대적 경영체제의 상점들이 생겨났다. 이 같은 구도는 일제의 행정 및 통치 거점의 전략으로 격자형 도시가로 계획에 따른 것이었으나, 외적으로 도시 공간 내에는 전차의 강렬한 움직임과 강철과 유리, 백화점, 그리고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1930년대 중반 경성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견되는 공간의 인상들이다.



도판 5. <화신백화점>, 1937년 사진.

무엇보다 백화점은 도시의 근대적 변모를 상업적으로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1938년 경성의 백화점은 조지야(1921), 미나카이(1922), 미스코시(1906), 히라다(1926), 화신(1931)의 5개 있었고, 그중 미스코시 백화점이 가장 먼저 생겼다. 화신을 뺀 4곳은 일본의 자본에 의해 남촌에 세워졌다면, 화신은 유일하게 북촌에 있었고 조선의 자본에 의해 세워졌다. 1890년 신태화에 의해 설립된 화신상회가 1922년 전성기 이후 일본의 백화점 등장 이후 경영난을 맞이하자 박흥식이 이를 인수하여 1932년 3층 콘크리트 대형건물을 지어 개업하였다(도판 5).<sup>40</sup> 백화점의 화려한 물건들과 젊고 친절한 점원들, 진열장, 에스컬레이터 등은 영혼을 사로잡을 만한 매력적인 것으로, ‘인공낙원’으로 회자될 법하다. 새로운 물건들로 가득 찬 만화경적 공간을 구성하며, 일상의 풍요로움과 유용성, 충만함과 포만감을 통해 근대성에 내재된 일상성의 무의식적 욕망을 가장 현시적으로 재현해 낸 공간이 바로 백화점이다.<sup>41</sup>

전위, 신흥, 첨단, 모던의 용어가 익숙해졌던 1930년대 문학가들의 도시 공간 역시 모더니스트의 취향적 공간이 아닌 리얼리스트틱한 공간과 초현실주의적 감각이 조밀하게 얽혀 있기도 하였다. 이상, 박태원, 김남천 등의 문학작 텍스트에서 도시는 일상적 삶에서 이루어지는 병든 감각의 회복과 미학적 실천의

40. 박상하, 『경성상계』, 서울: 생각의 나무, 2008, pp. 220-224 참조.

41. 배개화, 「소비하는 도시와 모더니즘」, 『한국현대문학연구』, Vol. 8 (2000), p. 254.

층	미쓰코시(1930)	화신(1937)
지하 1층	주방용품, 식료품 매장, 일반잡화, 간이식당, 이발소	식료품, 식기
1층	약국, 여행안내소, 조선물산진열소, 일본신발코너, 단체주문 상담실, 상품권매장, 화장품 코너, 단체주문상담실	안내계, 양품잡화, 화장품, 여행안내계, 상품권매장
2층	오복코너, 미용실, 드레싱룸	신사양복, 침구, 주단포복, 미술품, 시계, 귀금속, 안경, 견본실
3층	신사양복, 신사용모자, 구두, 숙녀양장, 응접실, 부인사교실, 가봉실	양품잡화, 부인아동복, 가봉실, 완구, 수예
4층	귀금속, 가구, 대형 홀, 커피숍을 겸한 대식당	서적, 문방구, 신사복, 가봉실, 이발부
5층	옥상정원, 어린이 놀이터, 온실, 카페, 갤러리, 사진실, 대합실, 원예용구매장	대식당, 조선물산, 악기, 사진기
6층		그랜드 홀, 스포츠라운지, 전기기구, 가구, 가구 모델룸
7층		옥상정원, 상설화랑, 사진부, 미용실

표. 1930년대 백화점의 층별 매장 구성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의식과 무의식의 장소로 등장했다. 리얼리스틱한 몽상과도 같은 '각성의 도취'로서 근대의 도시와 모던적 삶에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곤 했다. 특히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고현학'적 기법의 경성의 기록은 벤야민의 모더니티의 '산책자'로서의 시선과 중첩된다.<sup>42</sup> 산책자에게 도시는 거대한 경관(spectacle)로서, 산책 중 마주하는 공간에서의 자신과 마주하는 거울이자 쇼윈도이며, 시각적으로 디스플레이된 백화점과 같다. 그들이 진술했던 문학적 텍스트에서만 아니라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에서 근대의 도시, 경성은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거리를 활보하고 백화점 세일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할 일없이 다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상의 풍경이 노출되었다. 상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일들과 새로운 서비스 기술에 대한 소개가 잇달아 미디어를 달구었고 경성의 풍경은 네온사인과 물건들이 가득한 상점들로 분야성을 이루어 갔다. "백화점에서 소비대중은 최신 유행을 접했고, 상품의 소비를 통해 자신들의 첨단 유행의 감각을 시험했다. 백화점은 유행을 전파하는 공간

42. 고현학이란 1924년 일본의 학자 곤 와지로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고고학에 대비되는 용어다. 고고학이 과거의 유물과 유적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면, 고현학은 현대 문화인의 일상적 풍속과 세태와 유행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곤 와지로의 고현학이 사회과학 또는 민속학 연구의 범주의 것이었다면, 박태원의 고현학은 문학적 기법이나 태도로서 원용된 것이다. 박태원은 관찰자가 공간을 이동하면서 맛닥뜨리게 되는 도시적 삶과 풍속을 기록한다는 점이 다르다. 김동식, 「도시의 감수성과 모더니즘 문학」, 『박태원 단편선』, 글누림, 2008, pp. 483-484 참조.

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련된 판매전략을 통해 유행을 주도하고 창안하는 장소이기도 했다.”<sup>43</sup>

“서울의 복판 이곳저곳에 뛰어난 근대적 ‘데파르트먼트’의 출현은 1931년도의 대경성의 주름잡힌 얼굴 위에 장식하고 나타난 ‘근대’의 메이크업이 아니고 무엇일까.”<sup>44</sup> 백화점은 그 이름처럼 온갖 물건들이 가득했다. 풍요로움의 풍경이자 일상적인 소비문화의 대중적 접근이 가능해진 ‘인공낙원’이다. “소오다의 맛은 가일이 섞여서 정맥주사처럼 차고 유니폼 소녀들 허리에 번적번적하는 깨끗한 밴드, 물방울 낙수지는 유니폼에 벌거벗은 팔목 피부는 포장지보다 정한 포장지고, 그리고 유니폼은 피보다 정한 피부이다. 백화점 새물건 포장-밴드를 끄나풀처럼 피어 들고 바쁘게 걸어오는 상자 속에는 물건보다는 훨씬 훨씬 호기심이 더 들었으리라.”<sup>45</sup> 다양한 물건들, 그 속에서 다정하게 인사하는 데파트-걸의 젊고 생기 있는 모습들, 진열장, 에스컬레이터 등은 영혼을 빼앗길 만큼 황홀한 새로운 풍경으로 조선의 근대적 시각체제를 이루었다.

이처럼 이 글이 주목하는 근대적 사물의 공간으로서 백화점은 일차적인 물질문화의 진열장이자 동시에 서구화된 물질문화의 소비공간이었다. 근대적 세계에 대한 모델은 일본을 관통한 서구화 시선으로 식민지 조선인의 경제사정과 무관하게 도시 안에 디자인되었던 것이다. 빈곤한 조선인들에게 물질들의 풍요는 시각적인 것일지라도 인공의 낙원과도 같이 비추어졌고, 물리적으로 도시 공간의 백화점은 이를 잘 압축한 공간이었다. 백화점은 이국적인 물질문화의 세계가 소비되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소비를 위한 디자인과 소비문화의 공간으로서, 소비의 주체로서의 모던걸과 소비행위의 매개로서 데-파트걸의 교환적 행위가 발휘되는 장소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던걸의 시각적 근대성은 사물들의 디자인을 통해 학습되고 소비되었던 것이다. 모던걸은 이 백화점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쇼핑과 소비 그리고 연애에 참여하여 공간 활용의 주체가 되었다. 세계의 모던걸의 유행에 발맞추며 모자, 구두, 백, 의상 등을 소비하며, 표준화된 유행과 행복의 기표를 인식함으로써 스스로를

43. 고지현 (2010), p. 373. 「유행계를 찾아서, 유행을 누가 지어내나?」, 동아일보, 1937년 6월 3일 참조.

44. 김기림, 「도시풍경1,2」, 『전집 5』, 1988, p. 368.

45. 이상, 「산책의 가을」, 『전집3』, 문학사상사, 1993, p. 29.

모던화하는 공간이자, 그 표준화된 서구화의 맹목적 모방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조롱과 냉소의 시선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 2. '다방': 근대적 문화 공유와 사유의 공간

1930년대 경성은 백화점, 영화관 등의 공간 외에 남촌에는 카페, 북촌에는 빙수집이 등장하였다. 카페는 1930년대 북촌에까지 1천여 개로 늘어나면서 모던의 도시 속 쾌락과 문화의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구조파적인 지붕과 기하학적인 창이 교차, 투명체와 같은 하얀 벽, 밝고 세련된 거리의 꼭다점은 근대도시의 하나의 매혹의 추가이다.”<sup>46</sup>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는 ‘낙랑파라’와 ‘제비다방’을 거쳐 간다.<sup>47</sup> 모더니즘을 경험하고 흡수하는 다방은 차를 마시는 행위와 더불어 문화와 의식교류 등을 나눌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다방과 카페는 많은 의미 차이가 있었다. 다방은 카페의 번역어였음에도 1930년대 카페는 여급들이 나오는 술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카페가 현대적인 술집으로 인식되었다면, 다방은 차만 파는 고상한 공간으로 간주되었다.<sup>48</sup> 한자 문화권에서 다방(茶房)은 송대 거리에서 차와 다양한 물품을 팔던 찻집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고, 왕실의 차를 관리하는 관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고려나 조선에서 차를 파는 집은 없었고 궁중에 차를 공급하고 다례를 주관하던 관청이 바로 다방이었다.<sup>49</sup> 즉 다방이라는 명칭은 곧 역사적 장소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저변에 있었다면, 카페는 그와는 거리가 있었다. 카페의 시작은 서구에서였다. 1680년 파리에 카페 프로코프가 공공의 장소로 등장하면서 루소, 디드로, 몰리에르 등의 계몽사상가들과 예술가, 사교계 사람들이 카페에 몰려들었다. 영국에서는 커피하우스가 1650년경

46. 「경성의 꼭다점가를 걷다」, 『조선 및 만주』, 347호 (1936).

47. 낙랑파라는 1930년대 문학작품 속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다방이다. 「피로-어느 반일의 기억」(박태원), 「지축을 돌리는 사람들」(이무영), 「다당여인」(이선희), 「애욕의 금렵구」(이태준), 「김강사와 T교수」(유진오), 「장마」(이태준), 「다방찬」(채만식) 등 수필, 소설, 시 등에 공공연히 등장하였다. 제비다방의 경우도 「구인회 만들 무렵」(조용만), 「애욕」(박태원), 「제비」(박태원) 등의 소설, 수필, 콩트에서 등장하였다.

48. 손유경, 「1930년대 다방과 '문사'의 자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12 (2002), p. 96.

49. 이해원, 「문화(文化)·중국의 차(茶) 문화-3: 송나라 거리 풍경과 다방」, 『CHINDIA Journal』, Vol. 64, pp. 52-53 참조.

등장하여, 프랑스의 카페와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사교와 사회성을 음료로 나누는 장소로서 널리 확대되었다. 조선에 커피가 등장한 것은 1896년 고종이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커피를 맛보면서 애호가가 되었다고 전한다. 이전에 커피에 대한 맛이나 경험은 유학생들이나 서구 문명을 접한 이들 사이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나, 공식적인 기록은 고종에서뿐이다. 손탁호텔의 커피숍이 기록상 남은 최초의 다방이었고, 이후 1907년 일본인들이 ‘꼭다점(喫茶店)’을 내고 남대문 꼭다점이 1909년 영업을 시작했다. 샌드위치, 홍차, 양식도 판매되었다는 이곳을 시작으로 탑골 공원 안에는 탑다원(카페 파고다) 등도 생겨났다. 다방은 한잔의 차를 시켜 놓고 온종일 꼼짝하지 않은 벽화나 물만 마시다 가는 금붕어도 있었고,<sup>50</sup> 파초나 종려나무 같은 열대 식물과 베토벤 등의 고전 음악들, 신문 등이 함께 있는 공공 장소였다.

이러한 공간 외에 커피와 차를 전문적으로 팔고, 고전음악이 있고, 실내장식도 분위기를 맞춘 다방들은 1923년 나타났다. 일본인이 경영하던 후다미가 처음으로 나타났고, 1929년 조선인 경영의 최초의 다방 카카듀가 문을 열었다. 그중 화가 이순석이 소공동에 낸 다방이 낙랑(樂浪)파라였다. 낙랑파라는 경성 내에 가장 인기가 많아서 적자로 문을 닫지 않은 공간이었다. 1931년 문을 열었던 낙랑파라는 일본 동경미술대학을 졸업한 이순석(1905-1986)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1층에는 다방을, 2층에는 그의 아틀리에를 두고 있었다. 문학가들뿐 아니라 많은 인텔리 계층이 자주 찾았던 공간이다. 현재 소공동 프라자호텔 인근에 위치해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이 공간은 ‘경성의 은좌’라 칭해질 정도로 신생 상점들로 즐비했던 곳이다.<sup>51</sup> 내부에 대한 언급은 “쪽 들어서면 그 화려하고 경쾌한 맛이라니. 현대인의 미감을 만족시킨다. 맞은편 벽에 반나체의 여인 초상화가 걸렸다. 서양 배우의 ‘푸로마이드’도 뒤적거려 본다. ‘레코드’가 돌아간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는 그 음향-케익을 포크로 쿡 찢어 먹었다. ... 서울은 파리와 같이 생각되고 조그만 차점도 세계에서 제일 큰 사교장 같이 생각된다. ... 뽀이를 불러 신문을 청했다. 차집! 이것은 우리에게 현

50. 장유정, 『다방과 카페, 모던보이의 아지트』, 살림, 2008, p. 25 참조.

51. 「인테리청년 성공직업(1)」, 『三千里』, 1933년 10월.



도판 6. <다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이상>, 1930년 대.

대의 감각을 자극시키는 매개장이 아니야.”<sup>52</sup> 낙랑파라가 당시에 가져다준 인상인데, 대체로 이국적이면서도 근대적이라 할 만한 장면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때로 이곳은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위안처이자 문화활동의 공간으로서 인식되었다. 낙랑파라에서는 전시회, 문학의 밤, 연주회 등도 열렸다. 1936년 길진섭 소품전과 같은 전시나, 매주 명곡연주회 ‘괴테의 밤’ 등의 문호모임 등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그곳 낙랑파라에서 벌어졌다(도판 6).

제비다방은 이상이 자신의 집을 팔아 차린 곳인데 유독 다방에 애착을 가졌던 인물 중 한 명이 이상이다. 제비다방의 이후에도 ‘쓰루’ ‘무기맥’ ‘69’ 등의 다방을 만들었다 모두 경영에 실패했지만 문인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던 문화적 공간으로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박태원의 소설 속에서 “종로경찰서 앞을 지나 하얗고 납작한 조그만 다료에 들른다”(『소설가 구보씨의 일일』)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제비는 이상이 종로네거리에 새로 낸 다방이었다. 남쪽 큰길로 난 창을 뜯어서 바둑판 모양으로 네모진 창틀을 해 박았다. 안에는 사방이 흰 벽이고, 아무 장식도 없이 동쪽 벽에다가 커다란 초상화를 덩그렇게 걸어 놓았다. 그것은 삼십 호 가량의 누른빛이 짙은 유화인데, 이상이 고등공업 학생때 자화상을 그려서 선전에 출품하여 입선한 작품이었다. 다방에는 장식으로 큰 축음기가 놓여 있어야 하는데, 이 다방에는 서쪽 구석에다가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 거기다가 헐어 빠진 포터블 축음기를 놓았다.”<sup>5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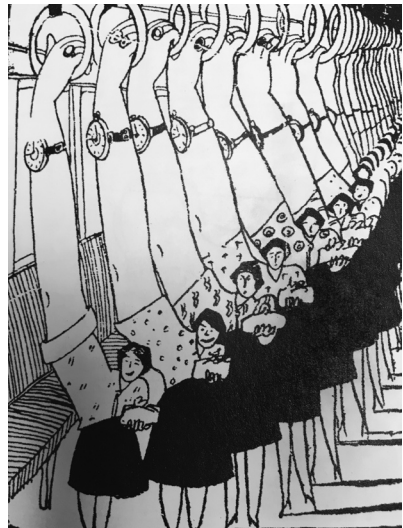
‘제비’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과 그 원작인 앙리 뮈르제의 소설 『보헤

52. 이선희, 「다당여인」, 『별건곤』, 1934년 1월.

53. 조용만, 『구인회 만들무렵』, 서울: 정음사, 1984, p. 59.

미안의 생활정경(Scene de la vie boheme)』에 근거한 것이라 한다.<sup>54</sup> 『라보엠』에 나오는 다방 모뮌스처럼, 이상은 제비다방을 예술가들의 혁신적인 사유가 함께하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다방이라는 공간을 통해 예술공동체 혹은 총체적 예술경험의 유형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생각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상은 경성고공 미술반에서 활동한 바 있고, 인상주의 이후의 미술 특히 마티스, 피카소 등의 예술에 경도되어 있었다.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등의 음악가 이름도 그의 글에서 발견되었고, 미샤 엘만(Micha Elman)이라는 당대 최고의 바이얼리니스트 연주도 직접 갈 정도로 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이상의 아방가르드적 예술감각은 18세 이전에 형성되었다 하며, 미술로부터 영화, 음악 분야로 확장되었고 문학으로 옮겨 갔다.<sup>55</sup> 모더니스트들의 실험적인 태도와 유사하게 이상은 그의 예술의 실험성을 '제비'에서 공동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폴리네르, 장쾡도 등의 초현실주의 문학에 대해 논쟁하고 판타지 코미디 장르의 영화를 찍었던 르네 클레르에 열광하며 다방에서 오고 간 애기들은 보헤미안적이면서도 고전주의적 분위기가 있었다. 이것의 모델 또한 보헤미안 공동체의 삶에 있었고, 그 기원은 라보엠적인 것이었다. 다방 '제비'의 어원적 기원 라보엠과 연결된 것이다. 뫼르제 소설은 보헤미안들의 대체적이 성공을 거두면서 평범한 일상인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보헤미안의 고귀한 정신성과 예술가로서의 존귀함은 희미하게 상실되는 순간이다.



도판 7. 안석주, 〈모던걸의 장신운동〉, 가상소견, 조선일보 1928년 5월 만문 만평 기사.

54. 조영복, 「이상의 예술 체험과 1930년대 예술공동체의 기원」, 『한국현대문학연구』, Vol. 23 (2007), p. 204 참조.

55. 앞 책, p. 208 참조.

보헤미안의 젊음과 정열을 회고하며 노래하는 장면에서 '제비'가 등장한다.

어젯밤, 제비를 보았네,  
봄을 알리러 찾아온 그 제비를.  
난 아름다운 그녀를 생각했다네.

(중략)

안녕, 잘 가시오, 옛 사랑  
이제는 시들어버린 그 옛 사랑

(중략)

잃어버린 낙원으로 가는 열쇠를 찾을 수 있을지도<sup>56</sup>

보헤미안적 삶에 대한 동경과 이상의 다방 '제비'는 분명 관계가 있다. 제비의 연원 자체는 문중혁의 증언에 의한 그대로 이상이 꿈꾼 다방의 이미지와 덴디적 예술가로서의 자기 면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방 제비는 1930년대를 살았던 김기림과 박태원 그리고 이상에게 모뮈스의 공간처럼 그들이 꿈꾸었던 예술가적인 공동체의 삶이 존재하는 낭만주의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다. 예술공동체를 꿈꾸며 근대적 예술과 문화의 프레임을 만들었던 그들의 공간은 다방이 이해를 일반적인 카페와는 변별하게 한다. 무엇보다 다방은 근대적 문화예술의 공론장이었던 것이다(도판 7).

이순석의 낙랑파라나 이상의 제비나 사실상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근대적 감수성과 근대적 문화태도를 소통하는 공간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근대 공간의 속 다방은 사실상 근대를 사물의 공간으로 보여준 백화점과 더불어 문화와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로 보여준 곳이다. 공간 구획에 따라 내부 디자인 역시 새롭게 근대적 디자인 공간으로 변화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의 담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예술적 교류처로 자리했던 곳이다. 사랑방 문화를 대신하는 공공영역 역할을 하였던 다방은, 살롱문화를 실현하고 있었다. 한편 1930년대 도래한 다방의 전성시대는 사회운동의 정치성이 사라진 뒤, 스스로를 대중의 전근대성으로부터 구분하려는 모더니스트들의 공간적 표상이었다. 정치적 공론장이 아닌 근대적 문화예술의 공론장 정도로 이해하는 편이 나올 것이다.

56. 허위르제, 『라보엠-보헤미안의 생활정경』, 이승재 옮김, 서울: 문학세계사, 2003, p. 396 참조.

## IV. 결론: ‘모단걸’의 물질문화와 근대적 감각

근대의 도시, 경성의 공간은 이중적이다. 전근대의 한양에서 근대의 경성으로 이행하는 데는 정서, 시각, 정치, 문화, 역사 등의 측면에서 이중적인 국면을 드러냈다. 그 가운데 각각 백화점과 다방은 이 같은 이중적이고 다층적인 국면을 보여주는 공간의 지표와도 같다. 실제로 두 공간은 사물들의 소비와 취미의 소비에 의해 구축되었고, 당시 미술의 카테고리에도 없던 디자인이 이 두 공간에 모던의 감각과 시각을 통해 투영되고 있었다. 특히 두 공간을 향유했던 모단걸의 시선은 백화점의 사물들을 욕망하고, 다방에서의 근대적 공간 구성과 인텔리의 취미를 욕망하며 근대적 세계를 모방하였다. 이 글은 근대화의 이식과 전개기에 사물과 공간변화를 통해 근대성에 대한 사유가 촉발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근대는 사물이 선점하고 그로부터 의식이 수용과 거부, 모방과 비판의 양가적 태도로 드러났음을 주목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구 디자인의 사물과 서구적 공간은 그곳을 향유하는 이들의 의식까지도 변화하게 했으며, 여기서 이 사물과 공간의 디자인은 일종의 전근대와 근대를 잇는 매개로 작용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빈곤과 사치, 조선과 근대의 대척적 거리감이 부의 계층에 따라 극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성은 근대도시의 양상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거주민임에도 근대에 속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도, 허위소비주체들 즉 시각적 스펙타클에 이끌리지만 결코 직접적 소비하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였음에도 사물로서, 공간으로서 서구의 물질문화를 삶 속에 직접적으로 매개되었던 것이다. 근대기 ‘모단걸’은 시각적 스펙타클의 주체로서 이 물질문화의 주도권을 쥐었으며, 문화적 공간의 점유자로서 전근대와 근대로의 세계를 매개했던 근대적 감각의 존재로서 읽혀야 한다.

### ■ 주제어

모단걸(modangul), 모던걸(modern girl), 물질문화(material culture), 백화점(department store), 다방(茶房), 디자인(design)

투고일	2015년 11월 28일	심사일	2015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30일
-----	---------------	-----	---------------	-------	---------------

## 참고문헌

- 「경성의 깍다접가를 걷다」, 『조선 및 만주』, 347호.
- 고지현, 「유행개념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근대성」, 『大東文化研究』, Vol. 71, 2010, pp. 365-396.
- 김기림, 「도시풍경1,2」, 『전집 5』, 1988.
- 김수진, 「모던걸, 식민지적 모방의 양가성」,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학술대회자료집』, 2005. 10, pp. 39-63.
- 김우필, 최혜실, 「식민지 조선의 과학·기술담론에 나타난 근대성」, 『한민족문화연구』 제34집, 2010년 8월, pp. 249-280.
- 김진송, 『서울에 만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모던라이프 언파레드-2, 30년대 일상문화』, 민속원, 2005.
- 배개화, 「소비하는 도시와 모더니즘」, 『한국현대문학연구』, Vol. 8, 2000, pp. 243-276.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20세기 생활 문화변천사』, 2001.
- 서지영, 「식미니조선의 모던걸: 1920-1930년대 경성거리의 여성 산책자」, 『한국여성학』, 22, 2006, pp. 199-228.
- 안함광, 「여성과 문화문제」, 『신여성』, 1933년 2월.
- 연구공간 수유+너머 근대매체연구팀, 『新女性: 매체로 본 근대 여성의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7.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2004.
- 이상, 「산책의 가을」, 『전집 3』, 문학사상사, 1993.
- 이선희, 「다당여인」, 『별건곤』, 1934년 1월.
- 「인테리청년 성공직업(1)」, 『三千里』, 1933년 10월.
- 임인생, 「모던이즘」, 『별건곤』, 1930년 1월.
- 장석만, 「수염깎기와 남성성의 혼동」, 『역사비평』 59호, 1992.
- 전완길 외, 『한국생활문화 100년』, 장원, 1998, pp. 89-92.
- 조용만, 『구인회 만들무렵』, 정음사, 1984.
- 조이담/박태원, 『구보씨와 더불어 경성을 가다』, 바람구두, 2009.

- 차미희, 「조선후기 서양 세계지리서의 도입과 지식인의 세계관 동향」, 『17, 18세기 조선의 독서문화와 문화변동』 (이화한국문화연구원총서 6), 혜안, 2007, pp. 139-162.
- 최규진, 「모던(modern), ‘모단(毛斷)’의 눈물」, 『일상생활사』.
- Bhabha, Homi K.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4(1994).
- Miriam Silverberg, “The Modern Girl as Militant”, in Gail Lee Bernstein (ed.), *Recreating Japanese Women, 1600-1945*,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 239-266.
- Partha Chatterjee, “The Nationalist Resolution of the Woman’s Question” in *The Nation and its Fragments: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Roger N. Lancaster and Micaela Di Leonardo, *The Gender/Sexuality Reader: Culture, History, Political Economy*, New York: Routledge, 1997.
- The Modern Girl Around the World: Consumption, Modernity, and Globalization*, Edited by Alys Eve Weinbaum, Lynn M. Thomas, Priti Ramamurthy, Uta G. Poiger, Modeleine Yue Dong, and Tani E. Barlow.
- Y. Shim Chung, “The Modern Girl (Modeon Geol) as a Contested Symbol in Colonial Korea”, in *Visualizing Beaut: Gender and Ideology in Modern East Asia*, Edited by Aida Yuen Wong,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12.

## Abstract

# Thinking Modernity and the Trans-Rolling of Things: Material Culture of “Modeon Geol” and Modern Sense in the 1930s

Namhee Park

This study is a challenge to keep Modeon Geol's track of modern sense as things and consciousness in colonial Korea. It doesn't discuss to 'Modernity without the assumption that the reason for the rolling-trans of the modern world and things. And It seek to Korean method and thought of modern culture as city as Kyeongsung(Seoul) in 1930s through the symbol of Modeon Geol. The awareness of modernity and the modern sense of the embodied process through a series of circumstances had been stimulated by the substance, rather than reason. Above all, this paper is not a bar to party dealing with modernity, it focuses on that subject and object recognition to modernity. So, first I examines the ambivalent sentiment of modern and Modeon Geol as performative subjects of the modern landscape in colonial Korea. Then it focus to Modan Girl's two spaces, namely, a modern things Space-department store and a modern cultural space-coffee shop(Dabang)' Cafe. Through material culture and modern sense of Modeon Geol, this paper wants to be read as one of the grounds for our contemporaries.